

‘집들이’ 추억



이규성의
전원에 산다

지난달 말 마을 단체여행 버스에서 마을 총무는 돈봉투 하나씩을 낸 찬조자의 이름을 불렀다. 매년 여행 경비 중 일부는 찬조로 이뤄진다. 오랜 관습이다. 전입 초기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의 찬조금이 솔찬했다. 심지어 기백만원이 넘는 찬조도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마을에 공장을 지은 업체들이 몇 십 만원 가량 마을에 회사하기도 한다. 우리 마을엔 생활공예품을 만드는 기업, 의료기기업체, 골판지 생산업체, 가구공장, 마늘장아찌를 만드는 공장, 소풍·닭똥을 발효해 퇴비를 만드는 업체, 피자공장 등 10여개가 있다. 규모는 그다지 크지는 않다. 그래도 전입·특근할 정도로 활발하다. 인근안거리 한식뷔페식당 세군데에 저녁 시간에도 노동자들이 북적이는 걸로도 대변할 수 있다.

그런데 올해 야외회에는 마을의 한 가정에서 100만원, 또 한 가정에선 20만원이라는 찬조금이 나와 모든 이들이 의아해 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예상치

못한 찬조금에 놀라자 총무는 20만원 찬조금의 사연을 들려줬다. 이날 두사람이 눈길을 끌었다. 바로 몇해전 마을로 이사온 할머니의 딸이 첫번째다. 딸은 50대, 서울에서 산다. 그녀가 찬조한 까닭은 그랬다. 어머니와 매일 마을노인정에서 들은 얘기에, 사연들로 한 시간 이상 전화를 나누다보니 아예 여기가 고향같아서 이번엔 꼭 가보고 싶었다고 했다. 그녀는 얘기를 마치고 노래도 두곡이나 불렀다. 마을 사람들이 노래를 시키고 앵콜을 요청한 때문이다. 아마도 그녀를 환영한다는 의미일게다.

다음으로 100만원을 찬조한 이는 우리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적은 카센터 사장이자 40대 중반인 그는 내가 이 마을에 전입할 당시 고등학교 졸업 후 그는 우리나라 굴지의 자동차서비스회사에 들어가 정비를 익혀 마스터, 명장 등의 칭호를 얻을 정도로 경력을 쌓았다.

그가 얼마전 집을 개축, 입주했다. 그래서 부부가 합의 끝에 집들이 대신 마을에 찬조하게 된 것이다. 이들은 6년 전에 결혼, 샌드위치 패넬로 지은 집에서 신혼살림을 꾸리다 마침내 징피패넬 벽체와 아스팔트 싱글로 지붕을 얹은, 번듯한 집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샌드위치 패넬로 지어졌을 때는 창고같이 볼품없고 작아서 신혼살이도 만만치 않았을거다. 40대는 극히 드물어 마을사람들이 무척 아끼는 부부다. 게다가 아이 낳고 새집 짓고 인근에 카센터를 차려 여전한 가정을 이뤘으니 마을 사람들이 칭송할 만도 했다. 그러면서 집들이 대신이라고 찬조금도 내놓았더니 더욱 반겼다.

잣나무골에 들어와 몇 번의 집들이를 경험했다. 출장뷔페로 잣나무골 입주자들과 회사원들을 불렀던 앞집, 작년에 룰게익과 사랑 한 봉지를 돌린 뒷집, 마당에 노래방기기를 차리고 국밥을 대접했던 옆집 등 새삼스레 ‘집들이’란 단어에 유독 꽂힌 날이기도 했다.

30여년전 집들이, 돌잔치가 물린 적 있다. 라이프스케줄 상 친구들이 막 결혼하던 때다. 그때 집들이하러 상계·중계동, 상일동, 잠실 등 저층 주공아파트가 즐비했던 동네를 많이 찾곤 했다. 그 신도시 이후 집들이는 거의 잊혀진 말이 됐다. 이번 야외회에 번쩍 귀에 꽂혔다. ‘집들이’, 그래 그런 말이 있긴 있었지. 잊혀진 추억, 단어를 마을사람들이 되찾아준 날이다.

/peace@metroseoul.co.kr

‘개인정보 유출’과 방지대책



기지수첩
나유리
(금융부)

“이해도 안되고, 양도 많아서 그냥 덮어뒀어.” 부모님은 법원에서 내앞으로 무언가 보내왔다면서 뜯겨진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무거운 서류 무게만큼 내가 잘못된 것이 있었던가 생각하던 찰나 문득 11년전 사건이 떠올랐다. KT홈페이지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사고였다.

2012년 KT는 2월부터 7월까지 모 IT업체 직원으로부터 홈페이지를 해킹당했다. 이로 인해 고객의 주민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1000만건이 유출됐다.

당시 대학생이던 기자는 법무법인을 통해 소를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한 것만 보고 사건을 잊었다. 왜 잊었는지 되짚어 보

자면 우선 먹고사느라 바빴고, 위자료 여부를 떠나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고 확인받았다면 결론은 당연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이후에는 재판이 정반대로 흘러갔다. KT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법원은 “KT가 개인정보 유출방지에 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KT의 정보 유출에는 책임이 있지만, 당시의 정보보안 기술 수준으로는 KT의 과실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근데 이 같은 결론은 현 시점에서만 봐야만 내릴 수 있는 결론이 아닌가. 당시 기업은 최선의 정보 보안 기술을 토대로 상품을 판매했고, 소비자는 이를 보고 개인정보를 제공했다. 그 기술 수준이 10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 낡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그들의 보안기술을 믿고 개인정보를 제공했기에 그에 맞는 책임을 져

야 한다는 의미다.

10여년간 끌어온 대법원의 판결이 아쉬운 이유는, 나의 판결도 같을 것이라는 생각보다 이로 인해 개인정보보호에 안일한 기업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정보보호 실태조사를 보면 개인정보 유출요인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답은 ‘관리 실수로 인한 유출’이었다.

범죄기술은 늘 기존의 기술보다 한발 빠르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보안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로, 소비자들은 하루에도 여러개의 리딩방 문자, 피싱사기 문자를 받는다. 향후에는 유출된 개인정보에 챗GPT를 더한 피싱도 만연할 가능성이 크다.

눈가리고 아웅아닌 실질적 대책, 법안이 필요한 때다.

/yul115@

오늘의 운세 11월 15일 (음 10월 3일) http://www.saju4000.com

- 취** 36년생 절이 싫으면 종이 나가야 할 터. 48년생 속세를 떠나면 할 일은 더욱더 많아 더 부지런해야 할 것. 60년생 명쾌하고 산뜻한 하루. 72년생 뒷사람에게 예의를 지켜야 도리. 84년생 두루 배풀면 오후에 일이 순조롭게 해결.
- 소** 37년생 기다리던 곳에서 소식이 오고 건강도 평온하다. 49년생 매매에 이동수가 있으나 마음을 잡자. 61년생 파란색이 행운을. 73년생 서류를 이치에 맞게 잘 작성하니 성과도 두 배다. 85년생 자기주장만 하면 주변이 시끄럽다.
- 호랑이** 38년생 배우자의 의견존중을. 50년생 치과 진료를 늦추지 말고 낫을 잡도록. 62년생 새로운 유행에 관심을 둔다. 74년생 상사의 의견에 토를 달기보다는 소통을 해라. 86년생 누구나 태어나면 한번 죽는 데 허망하게 가지 않도록.
- 토끼** 39년생 남쪽에서 귀인이오니 거래가 성사. 51년생 식탐을 줄여보면 병원 다니지 않아도 될 듯. 63년생 상금을 타서 부모님께 달려간다. 75년생 머리가 아프나 오후에 일이 해결되어 감사함. 87년생 믿고 의지할 곳이 없어 한탄.
- 용** 40년생 봉사는 항상 기쁜 마음으로. 52년생 구설에 주의하고 송사에 빠질 수 있으니 조심. 64년생 업무량이 많다면 쉬엄 쉬엄 일부터 해 나가보라. 76년생 태증 교육은 언행부터 신중히. 88년생 일은 말보다는 문서로 해야 신속 정확.
- 뱀** 41년생 정신무장을 더 단단히. 53년생 낙락장송(落長松)이 옛말이던가. 65년생 세상이 각박하지만 생각을 바꿔보자. 77년생 카페에서 한 잔의 여유로운 커피를 마셔보자. 89년생 영업은 의외로 직접 부딪쳐 추진하면 소득이.
- 말** 42년생 가을 매미의 시끄러운 소리처럼 주변 소란. 54년생 조상님 제사에 참석하도록. 66년생 봄에 꽃피 무렵이면 비가 많이 온다. 78년생 계획 없는 이직보다는 인내해야. 90년생 높은 곳에서 생각하고 세상을 바라볼 필요도 있다.
- 양** 43년생 가족이 모여서 소란스럽다. 55년생 신념을 가지면 하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진다. 67년생 잠재 능력이 표출되어 주변의 인정을 받는다. 79년생 금전 운이 약하니 돈거래는 주의. 91년생 저금 나눠주고 동가식서사속하지 않도록.
- 원숭이** 44년생 분배는 주변 상황을 잘 판단하여 이득이 나도록. 56년생 구름이 하늘을 덮으니 일이 늦어진다. 68년생 희망은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 80년생 부모의 이혼을 막도록. 92년생 자고 나도 피곤하니 쉬 주도록 할 것.
- 닭** 45년생 고생은 모르지만, 거짓은 하지 않으니 복이 온다. 57년생 업무의 능력으로 월말 결산에 이득이 발생. 69년생 보유한 산에다 길이나니 조상님 은덕. 81년생 공부가 싫다면 기술을 연마하라. 93년생 산일에 거미줄처럼 얽는다면.
- 개** 46년생 소용없는 짓을 한다는 뜻으로 죽은 말의 뼈다귀를 산다는 표현. 58년생 매화를 아내로 삼고 풍요롭다. 70년생 우선 시작을 하고 결과를 지켜보라. 82년생 일이 순조롭다. 94년생 바쁜 가운데 틈을 내서 부모님 농사일을 돌보라.
- 돼지** 47년생 남들이 싫어해도 나만 좋으면 그만인가. 59년생 큰 독도 작은 구멍으로 무너지니. 71년생 오후에 문서 계약. 83년생 일이 많아도 기쁨. 95년생 산 위에서 물고기를 구하듯 당시 않은 데 가서 영뚱한 것을 원한다는 상산구어(上山求魚).



김상회의四季 일상이 기도이자 수행

기도를 빼놓고서는 그 어느 신앙도 힘을 발휘할 수 없다. 기도의 위 신력과 체험은 모든 종교의 신앙인마다 간증하게 한다. 필자가 주석하고 있는 월광사에서 지난 10월 중순에 강원도 동해시에 있는 감추사와 고성 건봉사를 다녀온 바 있다. 봄과 가을 두 차례 신도분들과 함께 하는 산행기도 순례이기도 하다. 특정 지역으로 기도를 다니지 않아도 매일 유산소 운동을 하듯 마음의 근육을 단련하기 위해 십 분씩이라도 기도를 생활화하면 몸의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삼배를 올리고 마음에 닿는 경귀한 구절이라도 염송하며 오늘 하루도 게으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도 기도이다.

아니면 오 분이라도 법구경 한 구절을 읽거나 진언이나 불보살님들 명호를 염송하는 것도 기도다. 취침 전에 잠시 숨을 지켜보며 오감에 일어나는 현상을 지켜보는 것도 기도이자 수행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뭔가 근심이나 걱정이 있고 일상사에 장애가 발생했다고 생각된다면 작정 기도라 하여 삼칠일 일정한 시간대를 정하여 관음기도나 지장기도 등을 올리는 것도 전통적인 기도가 될 것이다. 참으로 신기한 것이 기도는 그 자체만으로도 신비한 힘이 있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듯이 알게 모르게 선한 기운의 조력을 받는 일이 생긴다.

기도는 그저 내려놓게 만든다. 이것이 바로 하심한다고 하는 것이다. 바라는 바를 우선 접고 마음을 모으게 되면 그렇게 기도는 가피로 이어진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위 신력이며 이는 필자만의 얘기가 아니다. 직관과 통찰이 열리는 조사들이나 선지식들이 한결같이 강조하시는 바다. 지장경에도 기도를 올리는 대상에게는 3할의 이익이요, 기도를 올리는 사람에게 7할의 이익이 돌아온다고 명시되어 있다. 기도는 공덕과 가피가 크다는 의미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곳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드의 알고리즘을 공개합니다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2	4	1				
		5		4		
9			3		5	
	2	7	6			
6					9	
			3	1	2	
	5	4			2	
		1		3		
				6	4	5

		8	7	4	2	5	6
			9				
	6		9	3			
		3	4		8	6	
		2		6			9
	2						
					7		
4	3	1	5	8	6		

9	7	9	2	6	8	8	2
2	8	8	9	2	1	6	9
2	1	6	9	8	7	2	9
8	9	2	1	8	9	7	6
6	2	9	2	7	8	8	1
1	8	7	6	9	2	8	9
7	9	8	8	1	2	9	2
9	2	1	7	2	6	9	8
8	6	2	8	9	9	1	7

6	2	2	9	8	9	1	8
8	9	1	2	7	2	9	8
8	7	9	6	8	1	2	9
9	6	7	1	9	8	2	8
1	2	9	8	2	7	6	9
2	8	8	9	6	2	7	9
7	8	6	2	1	9	8	9
2	1	8	8	9	6	9	2
9	9	2	7	2	8	6	1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310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150111 2017년3월09일 제1414호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